

結締組織疾病에 併發된 間質性肺病變에 對한 活血化瘀法의 治療效果 研究*

張恆鴻**

論 文 要 約

間質性肺病變은 結締組織疾病의 常見되는 併發證이지만, 지금까지는 理想的인 治療法이 없었다. 本研究는 本病의 病理機轉이 中醫에서의 “瘀血”證과 相互 類似한 것으로부터 始作하여, 中醫의 “活血化瘀法”과 西醫治療를 結合하여 治療하면서 患者의 肺氣能 檢査結果의 變化를 追跡해, 그 治療效果에 對한 評價를 내리는 作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風濕科에 依賴하여 結締組織疾病에 間質性肺病이 併發한 患者를 選別한 後에, 西醫治療를 通해서 그 原發性 疾病이 隱靜한 狀態에까지 이르도록 한 後, 必要한 最低量의 西醫藥만을 維持케 하였다. 患者의 意舍에 따라서 두개의 組로 나누어, 實驗群은 中醫에서 會診하고, Raynaud 症候群의 有無에 따라서, 當歸四逆湯 或은 血府逐瘀湯을 濃縮粉劑로 投與하며 連續하여 6個月間 治療하였다. 對照群의 境遇에는 中醫가 會診하지 않았다.

14個月동안 모두 實驗群 23例와 對照群 16例를 對象으로 研究를 하였는데, 모두 女性患者였다. 壓軸性肺用量(FVC), 肺總用量(TCL), carbon monoxide에 對한 肺의 擴散能力(DLCO), 그리고 肺泡空氣量(VA)에 對한 DLCO의 比를 指標로 삼아, 肺氣能의 損傷程度에 따라서 box plot으로 分析하고, 肺氣能의 損傷을 測定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實驗結果, 實驗群이 對照群에 比해서 治療 前보다 明顯한 改善이 있었다. 肺氣能을 檢査한 數值들을 一般的으로 統計處理한 것을 應用하고, TCL과 FVC의 模型式을 만든 結果, 實驗群에서 FVC가 治療過程의 期間과 正比例하여 向上되고, 또한 治療效果가 明顯하게 나타나기 始作하는 時期가 中醫治療過程을 거친 實驗群의 第12周에서 DLCO와 DLCO/VA 의 向上이 나타나는 時期와 거의 一致하는 것을 發見하였다.

* 본 논문 이후는 제2회 지산 국제 동양의학
SYMPOSIUM 발표논문입니다.

논문분량관계로 요약문만 실었습니다.

** 臺灣 中國醫藥學院